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대통령 치사



親愛하는 全國의 教育者 여러분 !

나는 오늘 全國의 教育者 代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第2回 全國 教育者大會를 갖게 된 데 대하여 衷心으로 慶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維新理念 具顯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獻身的인 努力을 繼續해 온 教育者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眞心으로 致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지금 舉族的으로 維新課業 遂行에 힘차게 邁進하고 있습니다.

「十月維新」은 여기서 새삼 說明할 必要도 없이 우리 周邊에서 非能率과 浪費 등 一切의 積弊를 一掃함으로써, 우리 國力을 굳건히 培養하고, 이것을 組織化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激變하는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主體性 있게 對處하고, 안으로는 分斷된 國土를 平和的으로 統一함으로써, 우리 祖國을 平和와 繁榮의 土臺 위에 올려 놓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民族의 一大雄飛를 期함으로써 世界史에 우리 民族의 榮譽를 燦然히 드높이자는 것이 그 根本目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모든 分野에 걸쳐서 推進하고 있는 이 維新課業은, 두말할 必要도 없이 우리가 기필코 成就해야 할 民族의 至上課業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十月維新」 第1次 年度の 새봄을 裝飾하는 여러분의 이大會는 特別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強調해 두고자 합니다.

教育者 여러분 !

나는 昨年에 있었던 第1回 全國 教育者大會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民族의 正統性和 確固한 國家觀에 基礎를 둔 教育, 즉 「國籍 있는 教育」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國籍 있는 教育」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그 實踐方向에 관해서 이번 機會에 나의 意



見을 提示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國籍 있는 敎育」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過去와 現實을 올바르게 認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過去와 現在를 올바르게 認識해야만 비로소 未來를 올바르게 把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民族의 過去와 現在를 올바르게 보는 눈, 즉 民族史觀의 形成과 이를 바탕으로 해서 大韓民國의 民族史의 正統性을 올바르게 認識하는 것이 곧 「國籍 있는 敎育」의 核心이라는 것을 強調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民族」이라는 말을 자주 써 오고 있습니다만, 그 「民族」, 즉 우리 民族은 어디까지나 하나라는 것을 먼저 똑바로 認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民族」은 連綿히 이어져 내려 온 우리 民族史와 더불어 秋毫의 變化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外勢의 侵略을 당했을 때는 職業과 宗派, 그리고 派閥을 渾然히 超越해서 모두가 一致團結하여 勇敢하게 外勢를 물리쳤습니다.

그 團結과 勇氣의 表象을 우리는 오늘 幸州山城이라든가, 또는 七百義塚, 그리고 가까이는 3·1 獨立運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文物의 隆盛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도 身分의 貴賤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各其 自己의 職分에서 才能을 啓發하는 데 精進을 거듭했습니다.

그 實例로, 우리는 世宗大王의 한글 創

製와 鄉學의 發達, 그리고 金屬活字의 發明 등을 자랑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이 모든 것을 民族의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階級鬭爭의 觀點에서 보려는 階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民族史의 正統性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커다란 矜持와 무거운 責任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民族史의 正統性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以上, 우리가 그 矜持를 더욱 빛내고 그 責任을 誠實히 完遂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우리 祖國 大韓民國을 위해서 最善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強調해 두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國籍 있는 敎育」의 始初이며 또한 그 모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認識이 透徹할 때, 國家觀도 確固히 定立되고 우리 國家가 必要로 하는 쓸모있는 人才를 養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이 바로 敎育分野에 있어서의 維新課業의 基本方向이라고 強調해 두고자 합니다.

敎育者 여러분!

지금 우리 祖國이 當面하고 있는 現實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國力培養의 加速化를 促求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國際情勢가 그러하고, 分斷의 歷史에 終止符를 찍으려는 民族의 召命이 또한 그러합니다.

이러한 現實 속에서 나는 國力培養의 基本은 重化學工業의 育成 發展에 있으



며, 이것은 또한 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있다는 것을明白하게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大會가 「全國民의 과학화」를 위한 教育者大會로 그 目的을 뚜렷이 設定한 것은 時宜에 알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이고 새삼스러운 것은 결코 아닐 줄 압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의 과학화는 우리의 뚜렷한 指標로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 機會에 이 指標를 다시 한 번 強調하고 새롭게 그 意義를 認識하자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는 農村의 劃期的 發展과 重化學工業의 育成, 그리고 輸出의 大幅 伸張이라는 三大目標을 내세우고 國力培養에邁進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三大目標을 達成하는 데 있어서는 科學과 技術의 振興이 무엇보다도 緊要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科學과 技術의 뒷바침 없이는 이 三大目標을 앞당겨 完遂할 수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例證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蔚山 工業 센터보다 規模가 훨씬 더 큰 工業地區를 여섯 개 더 建設할 豫定인 바, 이 工業地區에서만 必要로 하는 有資格 技術者의 數는 無慮 84 萬名에 이르게 됩니다.

이 84 萬名の 技術者들이 바로 우리 나라의 GNP의 50% 이상을 만들어 내고, 輸出 百億弗의 50% 이상을 擔當하게 될

重化學工業의 役軍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科學과 技術의 뒷바침이 祖國近代化의 三大目標을 達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緊要한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國民의 과학화」란 무엇이나?

우리는 「科學」하면 흔히들 研究室과 精密한 高級機器를 聯想하게 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科學化는 반드시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思考方式과 生活習性を 科學化해서, 비록 簡單하고 初步적인 科學知識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새마을 運動과 植木, 造林事業에 有用하게 活用할 줄 아는 그러한 國民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特定한 研究室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社會의 各界各層이 모두가 自己의 職種에서 生産과 直結되고 國力培養과 直結되는 科學技術의 生活化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國民의 科學化 運動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基本方向에서 서로 有機적인 聯關性を 맺고 強力히 推進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첫째는, 科學을 앞세우고, 科學을 日常生活에 活用할 줄 아는 科學的 生活風土를 造成하는 일입니다.

우리 先人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實事求是」를 獎勵해 왔습니다.

이것은 「事實에서 眞理를 찾아라. 眞理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生活 속에 있다. 즉, 實事に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즈음 우리가 使用하는「產學協同」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傳統的인 生活氣風을 오늘에 再現시켜서 科學的 生活風土를 造成하는데 積極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科學 및 技術教育制度의 大幅的인 改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制度的 改善이 理論爲主의 研究教育和 生産爲主의 技術教育이 서로 區分把握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指摘하면서, 몇 가지 政策的 課題를 提示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선 工業高等學校를 大幅 增設해서 우리 國家가 要求하는 實技能을 着實하게 갖춘 誠實하고 資格있는 技術者를 豐足하게 養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體力章制와 마찬가지로 技能章制를 實施해서 工業技術教育의 內實을 制度的으로 뒷바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國家考試制를 實施해서 職場에서 일하면서도 上級資格을 獲得할 수 있게 하고, 學生의 경우는 理論研究部間으로 進學할 學生과 生産部間의 職場에 就業할 學生을 이 考試制에 의해서 適期에 區分하여 앞길을 保障해 줌으로써, 精神的 乃至는 物質的 浪費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工業技術分野에 있어서는 資格者만이 就業이 可能하도록 措處함으로써, 正當한 就業機會의 保障과 生産性的 提高를 期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制度的 改善과 生活風土의 改善이 併行할 때, 우리가 提唱하고 있는

全國民의 科學化 運動도 훌륭히 그 成果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親愛하는 教育者 여러분!

우리 教育의 目的은 明白합니다.

그 目的은 우리 國家가 必要로 하는 誠實하고 能力있는 人才를 養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大國民國에서 자라서 우리 大韓民國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苗木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올바른 民族史觀과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確固히 定立 體得하고, 그 위에 透徹한 國家觀과 自主性を 確立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國籍 있는 教育의 基本이며 十月維新이 志向하는 바 理念의 基調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教育者 여러분이 우리의 榮譽로운 새 歷史를 創造하는 데 있어서 賦課된 바 그 使命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責任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強調해 두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維新課業 遂行에 힘차게 前進합시다.

그리하여, 十月維新의 偉대한 햇불이 永遠토록 우리 民族의 榮譽를 빛나게 합시다.

1973年 3月 23日

大 統 領 朴 正 熙